

“왕위 포기는 ‘시즌3’ 암시 같아 좋았죠”

‘킹덤2’ 배우 주지훈

“운포늬 신에서 높은 곳에서 좀비들이 단체로 뛰어오는 장면을 보는데 이거 실제로는 못 이기겠다 싶더라고요. 드라마니까 이렇지 당시엔 기관총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더라고요.”

배우 주지훈(38)은 ‘킹덤’ 시즌2 첫 장면을 장식한 생사역과 전투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킹덤2’는 시즌1보다 압도적인 규모, 수위 높은 표현으로 최근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시즌에선 본격적으로 핏줄과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피를 탐하는 병자들과 혈통을 탐하는 인간들의 두 가지 상반된 세계를 담았다.

두 세계를 오가며 성장하는 세자 이창의 모습을 그려낸 주지훈은 1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라운드인터뷰에서 “영화는 관객수가 나오고 드라마는 시청률이 나오지만 ‘킹덤2’는 그렇지 않아 SNS 등을 통해 직접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며 “즐겁게 봐주는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타국 사람들이 볼 땐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서구권에선 동양 문화 하면 아직은 중국, 일본 쪽의 복식과 풍경을 떠올리잖아요. 새로운 동양적인 미를 느끼게 아늑하게 싶습니다.”

‘킹덤’ 시즌1은 해외 시청자 사이에서 ‘갓’이 인기를 끌었다. 미국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와 아마존에선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갓이 거래되기도 했다. 주지훈은 “시즌1의 ‘갓’ 열풍을 의식했다”며 성곽을 내려다볼 때 무영(김상호 분)이 다가와 뒤에서 갓을 씌워주는 장면은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갓은 상징적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시즌1의 안현태(허준호)도 다들 거지꼴

“전지현 출연에 저도 놀라

킹덤은 결국 우리들 이야기

닥쳐오는 일들 해결하며

함께 살아가잖아요”

을 하고 있어도 세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요. 긴박한 상황에서도 창의 것을 챙기는 무영의 모습이 무영의 충정심과 세자의 정통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킹덤2’ 촬영은 시즌1이 공개된 작년 봄에 시작됐다. 드라마 속 배경은 겨울이지만 촬영은 한여름을 지나야 했던 셈. 주지훈은 “땀이 너무 많이 나 정리하는 게 일이었다. 옷이 세겘, 네겘 되는 한복이라 입히기 쉽지 않은데 컷마다 입혔다 벗겼다 하니 스태프도 고생했다. 또 피를 물엿같이 단 것으로 만들다 보니 모기때도 몰렸다”고 털어놨다.

“특히 상복은 삼베옷이라 표면이 거칠거든요. 영신(김성규)이 ‘가셔야 합니다’ 하고 세자의 옷을 끌어낼 때마다 손끝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 고충들이 좀 있었죠.”

‘킹덤2’는 마지막 장면에서 생사초의 비밀을 전 새로운 캐릭터로 전지현을 등장시키며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주지훈은 “어릴 때부터 전지현의 팬이었는데 작품과 함께 한 적은 없었다”며 자신도 전지현의 특별출연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고백했다. 이어 “긴 시간을 함께 한 배우, 제작진과는 전우애가 있다. 시즌3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넷플릭스가 움직인다. 많이 궁금해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주지훈은 창이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결말에 대해 “시즌3를 암시하는 것 같아 좋



았다”고 했다. 그는 “창이 자신은 조카주(유승룡)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권력을 위해 백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나”며 “내가 왕이 돼버리면 (드라마에서) ‘아웃’이니까 그리고 싶진 않았고…”라고 답을 던졌다.

“‘킹덤’이 극성이 강해서 그렇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겪으며 성장해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얘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연합뉴스

‘이태원 클래스’ 청춘의 복수는 짜릿했다

시청률 16.5% 최고기록 중영



‘클래스’<사진>가 남달랐던 JTBC 금토극 ‘이태원 클래스’가 마지막 회에서 15% 벽을 깨며 자체 최고 시청률로 중영했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방송한 이 드라마 최종회 시청률은 16.548%(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전날 방송에선 박세로이(박서준 분)가 장근원(안보현)에게 납치된 조이서(김다미)를 구출하고, 장가를 인수·합병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오수아(권나라)의 내부 고발로 위기를 맞은 장대희(유재명) 회장은 박세로이에게 결국 무릎을 꿇고, 박세로이와 조이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행복한 결말로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이태원 클래스’는 뻔할 수 있는 복수극 설정을 청춘이 기성세대를 향해 반격하는 이야기로 풀어가며 차별화를 꾀했다. 청춘을 상징하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포착하는 설정 또한 창업 판타지를 자극하는 트렌디한 소재였다.

박서준, 유재명 등 주연들의 안정감 있는 연기와 특별출연한 손현주의 존재감, 김다미가 연기한 조이서 캐릭터의 신선

함은 보는 재미를 더했다. 김성윤 PD의 연출과 박성일 음악감독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은 술한 명장면을 빚어 내며 몰입도를 높였다.

다만 뒤로 갈수록 비현실적인 설정과 멜로 라인에만 집중된 이야기 전개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박세로이의 굳건한 신념은 끝까지 시청자 이타를 막고 화제성과 시청률 면에서 여타 드라마를 모두 압도했다. 박서준은 ‘이태원 클래스’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인상을 남긴 청춘 드라마를 다시 한번 필모그래피에 추가하게 됐다.

후속으로는 오는 27일부터 김희애-박해준 주연의 ‘부부의 세계’가 방송된다.

한편, 전날 방송한 드라마 중에선 최종 회만을 남겨둔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이 25.4%-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tvN 강연쇼 ‘시프트 2020’, 팬데믹 시대 진단

다음 달 3일·10일 방송

tvN은 다음 달 3일과 10일 밤 9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다루는 강연 프로그램 ‘시프트(Shift) 2020’를 방송한다.

‘팬데믹 쇼크’와 ‘팬데믹 생존법’ 등 총 2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때문에 바뀐 우리 일상과 사회적인 변화,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을 포착하며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릴레이 강이다.

방송인 안현모가 진행자로 나서며 감

염전문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진화학자 장대익 서울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토크를 펼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박지은 PD는 “다섯 명의 전문가와 함께 빅데이터로 보는 ‘애프터 쇼크’, 경제 위기, 의료재난 시스템, 문명의 대전환, 불안 사회에 대해 다루며 팬데믹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50 꽃길만 걸어요(재)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지구촌 뉴스 4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스파이 야생 대탐험	45 공부가 머니? 스페셜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실컷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5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공룡의 왕국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카토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스핀지 스페셜		20 헬로킴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남북의 창(재)	00 동물학당 수다승철(재)		00 뉴스브리핑
[3]	1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서가식당(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 2 40 최총우돌 만국 유랑기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40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동물의 왕국	00 대화의 회열 스페셜 <배철수 편>	00 5 MBC 뉴스 25 콘텐츠 박물관 건강한 집 세계의 예코하우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만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아무도 모른다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05 배철수 쟁	
[11]	00 더 라이브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TV는 사랑을 싣고(재)	05 리얼연애 부러우면 지는거다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0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55 다큐 인사이트(재)	40 특선다큐 하늘에서 본 알제리	50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재)	20 나이트 라인 50 앙코르 고향건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맹 유치원	14:45 몰랑	19:3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웅망귀 귀여워(재)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원더랜드 로키, 일래스카
09:40 아웅망귀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와일드 로드, 로키)
10:00 특집 부모특강 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여행책에 없는 제주 1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유채꽃 필 무렵)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23:35 별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3일 (음 2월 29일 乙丑)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8년생 목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60년생 단숨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84년생 기대 해왔던 바가 실망시키는 정황이다. 96년생 단단히 매듭을 지어놓자. 행운의 숫자 : 39, 77</p>	<p>午</p> <p>42년생 추진하다 보면 의문점이 저절로 풀릴 것이다. 54년생 안정세를 띠기 시작할 것이다. 66년생 기존에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에 대해서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78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90년생 원칙은 알고 있되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02년생 확실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42, 58</p>
<p>丑</p> <p>37년생 뜻대로 진행되다 이득은 미지수다. 49년생 양자의 차이가 큼을 감안 하자. 61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다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아니 되느니라. 73년생 형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인부터 인식하라. 85년생 망심하다가는 순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97년생 다목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1, 61</p>	<p>未</p> <p>31년생 다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3년생 상생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혀지는 판국이다. 55년생 진행하는 방식이 구체적이어서만 설득력을 갖는다. 67년생 안배를 잘 해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79년생 상대의 조건을 가볍게 여긴다면 난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91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7, 64</p>
<p>寅</p> <p>38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순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 없다. 50년생 확대하거나 숨겨져 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대하자. 62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껏 높다. 74년생 빨리 포기 할수록 현명하다. 86년생 흥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98년생 상대의 속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만 제대로 조정 한다. 행운의 숫자 : 84, 89</p>	<p>申</p> <p>32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44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 하게 될 것이니라. 56년생 사회적 통념으로 판단하면 무난하리라. 68년생 극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80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92년생 형식적인 절차는 사족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1, 69</p>
<p>卯</p> <p>39년생 파격적인 발상이 극면을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1년생 믿고 의지했던 바가 불시에 사라지는 구도이니라. 63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근혹스러워질 수 있다. 75년생 가변적인 형국까지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7년생 귀인의 방면이 있을 것이니 맞이할 준비를 하라. 99년생 적극적으로 이행해야만 목적에 부합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50</p>	<p>酉</p> <p>33년생 기정사실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정확히 해야만 후회가 없다. 45년생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도량을 형성하게 되리라. 57년생 안배를 잘 해야겠다. 69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81년생 보면서도 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느니라. 93년생 막연한 추정은 심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화근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4, 55</p>
<p>辰</p> <p>40년생 자기 껍데 자신이 넘어갈 수 있다. 52년생 충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 해볼 여지가 있다. 64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76년생 실제적인 활용 가치에 주목하라. 88년생 불가 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다. 00년생 예상치 못한 정황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8, 88</p>	<p>戌</p> <p>34년생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46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58년생 오매불망하며, 염원해 왔던 것을 궁극적으로 얻으리라. 70년생 준비하는 경향과 치밀성에 따라 성취도가 천양지차기 될 가능성이 높다. 82년생 확실한 변화가 절실하다. 94년생 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면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91</p>
<p>巳</p> <p>41년생 다수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53년생 구슬수를 조심하자. 65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77년생 도모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백번 낫다. 89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01년생 총체적 점검과 정비가 요구 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02, 66</p>	<p>亥</p> <p>35년생 고정 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47년생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확실한 주권을 갖자. 59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71년생 최소화 하는 것이 경제성에 일조 하리라. 83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괜찮다. 95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바를 펼친다면 뜻을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29, 75</p>